

다산포럼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가 두각을 보여 이후 한국에도 핀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2015년 한국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는 아마도 핀테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양자간의 융합을 의미한다.

최근엔 IT기술을 이용한 금융산업의 혁신을 뜻하는 말로 주로 쓰인다. 핀테크에 포함되는 사업영역을 보면 지급결제 서비스, 대출, 개인자산관리, 자금조달 등으로 분류된다.

현재까지는 지급서비스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이 있다. 이전에는 전자지갑이나 간편결제 등으로 불리던 사업영역이었는데, 이와 같은 지급서비스는 규격화가 쉽

핀테크, 획기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필요하다

(Fintech)

고, 비금융기업들의 진출이 용이한 영역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아직 IT 기업들이 은행업에 직접 진출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더라도, 이미 핀테크의 영역은 지급서비스를 넘어 대출, 투자중개, 보험업과 같은 핵심 금융업 전반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미국의 이베이(eBay)가 1998년에 세운 페이팔(PayPal)은 전자상거래상의 지급결제서비스와 금융소비자간의 송금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작년 시점에서 보자면 모회사인 이베이 매출 결재액의 4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페이팔(PayPal)은 2013년부터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대출중개서비스도 시작했는데, 페이팔 계정의 기록만으로 대출 가능여부와 금액 및 이자율을 결정함으로써 별도의 신용조회와 같은 절차가 필요 없다.

알리바바도 2013년부터 전자상거래 기록과 채구매울 등과 같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출적격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신용대출업에 진출했다. 알리바바의 지급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 계정에 예치된 잔액을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 MMF(Money Market Fund)도 출시되

었으며, 변액생명보험 상품도 내놓았다. 심지어 '저장왕상은행(浙江網上銀行)' 설립을 인가받아 은행업에 직접 진출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한 금융기관 제휴 지급서비스 카카오페이가 나와 있고,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뱅크월렛카카오를 내놓기도 했다. NHN은 일본에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라인페이를 기반으로 하는 네이버페이를 내보일 예정이고, 전자금융업등록까지 마쳤다.

뿐만 아니라 SKT나 삼성전자와 같은 IT 업체들도 지급결제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의 낙관대로 아직까지는 지급결제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비금융기업이 일반 금융업만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등으로 은행업에까지 진출할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 서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입장이 아직 보이지 않아 우려가 없을 수 없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자금도 2015년 중 2000억 원 이상을 조성

하기로 했다. 신규 전자금융거래에서 보안성 심의를 폐지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증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한 것도 대표적인 육성책의 일환이다.

금융사들이 알아서 인증방법을 마련하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손으로 다 꼽기도 어려울 만큼 금융보안사건이 빈발하고, 특히 작년 1월에 1억 건이 넘는 카드사 고객정보유출이라는 대형참사가 터졌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 것이 한국 금융의 현주소인데, 이에 대한 설득력은 대책 없이 전자금융업 육성과 인가에 우선 돌입한 모습이다.

물론 공인인증서가 있을 때에도 금융사고는 계속되었던 것이지만, 무인간 신뢰할 만한 내용을 내놓기 바라는 것이 금융소비자의 입장이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기존 금융사보다 보안의식이 강할 것으로 볼 수 없는 전자금융운영업체들에게 맡겨지는 것이라서 우려는 더 크다.

혁신이나 변화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준비를 갖췄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그 준비의 핵심에는 획기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촌 특·특

나에게 2년의 사회생활이란



김효성
남부대 언어치료정착학과 1학년

로 언어재활사라는 꿈이었다.

나에게는 두명의 동생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동생이 아프다. 막내 동생은 자폐를 동반한 언어발달장애를 갖고 있다. 유치원 시절부터 초등학교생인 지금까지 언어치료와 미술치료 외에 많은 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많은 치료를 통하여 점점 나아지고 있다. 만약 동생이 언어치료를 받고 효과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까지 직장을 다녔을데고, 대학에는 진학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동생이 많은 치료효과를 보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점점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꼈다.

난 항상 내 동생만 아픈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동생처럼 아픈 아이들은 물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많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보았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다. 언어재활사의 꿈을 언제까지 미룰 수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회사 동료들에게 내 사정을 설명했고, 그들은 흔쾌히 사직을 허락했다. 또한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며 격려도 해 줬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격려를 받고 남부대학교 언어치료정착학과에 지원하였

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남부대학교 언어치료정착학과에서는 언어재활사 외에 청능사가 되기 위한 과정도 교육해 주고 있다.

언어재활사는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어 기질적 또는 단순한 언어지체를 보이는 언어발달장애,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특정 발음을 못하거나 다른 발음으로 말하는 조음장애, 목소리에 문제가 생기는 음성장애, 말더듬, 뇌의 언어 중추 또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신경말·언어장애, 청력손실로 언어발달이 지체되는 청각언어장애를 치료하는 직업이다.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 대학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해야 국가자격증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급은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서 3년이상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언어재활기관에서 1년이상 재직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청능사는 교활화 사회에서 난청(듣기 능력 저하)인구의 증가로 국내 청각전문가의 기반이 되는 청각학의 도입이 요구되면서 도입된 자격증이다. 청각학을 기

반으로 병·의원에서 청능 평가를 하거나, 청각센터에서 보청기·인공와우 등을 그 사람에게 청력에 맞게 조절해주는 일, 그리고 청능재활훈련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청각관련 최고의 전문 자격증이다.

합격 통지를 받고 이제는 나보다 두 살이 어린 친구들과 대학을 다녀야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다. '나를 불편해 하면 어찌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예상보다 순탄했다. 같은 학년들과 잘 어울리고 있으며,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의 질서와 예의를 배운 덕분에 선배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대학도 사회의 축소판인 것 같다. 사회나 대학이나 직위나 계급(학년)으로 따지기 때문에 비슷한 점도 많았다.

나는 지금 대학본부에서 업무보조를 하며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있다. 이 일에도 직장생활을 할 때 사무직으로 일을 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내가 했던 일들이 이렇게 밑바탕이 되어 점점 더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느낀다. 내 자신과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그것이 힘들고 하찮게 여겨져도 경이적이고, 쓸데 없는 경험은 없다고 말이다.

기 고

'5포세대'들에게



유순남
수필가

린 배를 물로 채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내가 무언가 그 청년에게 잘못을 한 것만 같다. 지친 몸을 누이고 쉴 거처는 있는 것인지.... 언젠가 들었던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이라도 끊이지 않고 받았으면 좋겠다.'는 어느 젊은이의 희망을 버린 말이 또 나를 괴롭힌다.

요즈음 '3포세대'와 '5포세대'라는 말이 유행이다. 3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의미고 '5포세대는 '3포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뜻이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가슴 아픈 신조어들이다. 힘들게 공부하고도 기업체 채용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교사 임용고시 등의 높은 턱을 넘지 못하고 도시 빈민이 되어간다. 이쯤해서 고용되어 일하는 것만이 능사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 부족이다. 생산 작업이 기계화되고, 예전처럼 집에서 아이를 키우던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모두가 도시 월급쟁이만을 원하는데 있을 것이다.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가보자. 직업이라고는 농업과 관리(官吏)뿐 인 과거. 농어촌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희로애락이나 예술과 문화면에서 과연 지금보다 못했을까? 나는 정서나 생활풍속 그리고 시서예악 등은 지금의 그것보다 훨씬 더 중후하고 멋스럽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시골에는 사람냄새가 난다. 마을 어귀에 '덕필유린(德必有隣)'이나 '고향은 어머니 마음과 같다' 등의 글귀가 쓰여있기도 하고, 혹은 먼 옛날 향약과 같은 '마을 리칙(里則)'도 볼 수가 있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농사도 훌륭한 장업이 될 수 있다. 자본이 없는 젊은이들은 '마을 리칙(里則)'도 볼 수가 있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농사도 훌륭한 장업이 될 수 있다. 자본이 없는 젊은이들은 정부의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찾아보고, 귀농한 선배들의 자문을 구해 최소한의 집과 먹을 것 그리고 이웃은 격

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골로 가서 새로운 농촌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문제는 여성들이다. 편리한 도시생활에 길들여져서 농부와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한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할 남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들. 또는 이상이 너무 높아 짝을 찾지 못하고 혼자 사는 여성들. 아니면 결혼, 출산, 육아가 싫어서 연애만 하고 살라는 여성들. 실정을 편하게만 안다면 여성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살아보니 아이 낳아 기르면서 맛보는 행복감이 견줄만한 온전한 기쁨도 없다. 가난과 불행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이들의 재물이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에도 아이들이 있어서 살 이유가 되어준다. 사람은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일 때 비로소 사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도시생활은 포기하더라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아 기르는 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社 說

'임을 위한 행진곡' 대통령 결단밖에 없다

옛세 앞둔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이 두 곳에서 나눠 치러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정부와 5·18 유족회 등이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및 제창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각기 별도의 장소에서 5·18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5·18 35주년 행사위원회는 오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국 가보훈처 주관의 기념식에 불참하는 대신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을 치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실상 '반쪽행사'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유다역 이번 기념식은 현재 총리가 공식이라 대통령마저 불참할 경우 5·18 피해 당사자와 유족조차 없는 사상 초유의 '4無' 기념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5·18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가장 초라한 기념식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5·18 기념식은 이명

박 정권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제대로 된 행사를 치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2년 전 국회에서 결의 안까지 채택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다.

5·18은 민주와 인권, 평화의 햇볕을 높이 치켜들며 죽음과 피로써 이 땅에 민주화의 초석을 이루어낸 우리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기념식을 갖는 것은 '5·18 정신'을 새겨 주고한 민주적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자는 데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의 60% 이상 이 찬성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조속히 결정해야 할 자치단체도 2년 전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되새겨 우리나라를 더욱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는가.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 등 5월 단체들도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며 요구하되, 주인으로서 기념식 참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공서마저 외면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일하는 건물 안에 아이가 있어 엄마가 언제든 볼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워킹맘들의 꿈이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다.

업무와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위탁 운영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대규모 사업장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1억 원 범위 안에서 1년에 2차례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2억 원을 물릴 수 있다는 얘기도.

그럼에도 의무사업장 4곳 중 1곳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204개의 사업장 중 301곳(25.0%)이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최근 밝혔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은 69%와 65.4%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권(광주 13위·전남 15위)을 기록했다. 또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 사업장은 모두 18곳으로 나타났다.

이중엔 법률과 정부 방침을 앞장서서 준수해야 할 자치단체도 대거 포함돼 있다.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는 3년째 이를 미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나주·목포·순천 시청과 해남·화순 군청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말로만 저출산율을 걱정하고 있는 셈이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는 여성들의 경우 아이를 낳고 맡길 곳이 없거나 '민고' 맡길 만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많다.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담으로 직장어린이집이 맨 먼저 꼽히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법 준수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를 넘어서며 녹음이 짙어지고 있다. 강렬한 붉은 빛깔의 철쭉과 달리 새하얀 꽃을 피우는 이팝나무는 '입하목'(立夏木) 또는 '얕밭'(이팝)을 연상시키는 모습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매년 5월 이맘 때 이팝나무 기행을 떠날 때면 순천시 승주읍 평중리 이팝나무(전연기념물 36호)와 황전면 평촌리 농소마을 이팝나무(전남도 기념물 제184호)를 제일 먼저 찾는다.

400여 년 수령으로 추정되는 평중리 이팝나무는 수년 전 쪼개는 시기

이팝나무

에 우수수 울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올해는 수세(樹勢)를 회복해 예쁜 꽃을 피웠다. 한 마을주민은 수십 년 전 태풍에 나뭇가지가 부러지기 이전에는 더욱 나무모양이 좋았다고 말했다. 농소마을 이팝나무 역시 주중애 절정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400여 년 전 마을이 생기면서 개울가에 심은 나무로, 극심한 가뭄이 들어 모든 나무가 말라 죽었으나 이 나무만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전설이 있다. 마을 앞 당산목(堂山木)을 대하는 두 마을주민들의 애정은 각별하다.

전북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마령초

등학교 이팝나무 군락(전연기념물 214호)은 슬픈 스토리를 품고 있다.

병들거나 흉년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배굴이 죽은 어린 자식을 마을 뒷동산에 묻은 아버지는 무덤가에 이팝나무를 그루를 옮겨 심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또 다른 아버들도 야기 무덤을 짓고 어김없이 이팝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이팝나무 숲을 이룬 뒷동산 애장터(어린이 공동묘지)는 개발 과정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초등학교가 들어섰다.

장성 백양사 쌍계루 앞에는 '각진국사 이팝나무'가 있다. 고려 공민왕 때 백양사를 창

하고 비자나무 숲을 조성한 각진국사가 짓고 다녔던 지팡이를 연못가에 꽂아두었던 것이 자라난 것이라고 전해진다.

요즘 망월동 가는 길을 비롯해 광주시가지 곳곳에서 이팝나무가 새하얀 꽃을 피우고 있다. 과거에는 어린 주먹을 위로하고 마을 땅기운을 비보(禱補)하기 위해 심었던 나무가 어느새 가로수로 자리잡은 셈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영봉철에 노거수(老巨樹)를 바라보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그 마음만은 변함없을 듯 싶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자인쇄 2200-536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